

정읍시 일제 왜곡 마을이름 바꾼다

주산→대피, 평대→평천

10개 읍면동 행정구역 개편

주민 편의 위주로...다음달 시행

정읍시가 종합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3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역사적 지명 활용과 구역 조정, 일제시대 왜곡된 마을이름 변경, 아파트 신설 등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에 나섰다.

먼저, 자연마을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신태인을 연지마을을 연지마을과 연기아파트로 분리해 운영한다.

또 '대흥'이라는 지명으로 역사가 오래된 지역

인 입암면 접지리의 동부·서부·남부·중부·문화 등 5개 마을과 신마석 마을을 편입해 입암면 대흥리를 신설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지명이 왜곡된 고부면 주산(舟山)마을은 대피(竹山)마을로 변경하고, 산내면 평내(坪內)마을은 평천(坪川)마을로 변경한다.

수성동의 뉴캐슬아파트 준공과 관할범위가 넓은 수성동 9동·10동·36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해 4개 통 7개 반으로 조정한다.

장명동 3동·7동·8동의 관할구역은 도로를 기준으로 생활권역에 맞게 조정해 2동, 3동, 7동, 12동으로 조정 운영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신축에 따라 자연마을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내장상동 1동은 1동과 오뚜그란데 아파트로 분리해 1개 통, 3개 반을 신설하고, 초산동 8동은 8동과 영부대아파트로 분리해 1개 통, 4개 반을 신설한다.

또, 기존 1개 통으로 운영된 초산동 양우내안에 아파트는 2개 통으로 분리하고, 연지동 영부대아파트는 기존 1차와 2차 아파트를 분리해 1개 통, 2개 반을 신설한다.

상교동 첨단 LH행복주택아파트 신축에 따라 상교동 32통을 32통과 첨단 LH행복주택아파트로 분리해 1개 통 8개 반을 신설한다.

정읍시는 그동안 주민 불편이 야기된 대상지의 실태조사를 마치고 행정구역 조정계획 수립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

이같은 행정구역 개편은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최대한 일치시켜 주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화장품기업 오세요”...남원시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착공

노암산업단지에 3층 36개 임대공간
화장품 샘플 제작·촬영실 등도 갖춰

남원시가 화장품 기업을 위한 임대 공간인 '남원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23일 첫 삽을 떴다.

센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268억원을 투입해 남원 노암산업단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만564㎡ 규모로 건립되며 36개의 공장형, 사무실형, 스타트업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들 임대 공간에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기본 설비가 구비된다. 또 입주하는 화장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실, 샘플제작실, 촬영실 등도 갖췄다.

남원시는 오는 10월께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가 건립되면 남원시의 '친환경 화장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화장품 원료 소재 개발과 원료 식물 대량 공급, 원료 물질 추출, 제품화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남원시는 23일 노암산업단지에서 화장품기업 전용 임대공간인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를 착공했다.

앞서 남원시는 센터 인근에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천연화장품원료생산시설, 화장품제조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30여개 화장품 기업을 유치했다.

이완주 남원시장은 "센터는 국내에서는 유일하

게 화장품 관련 전문 인프라를 모두 갖춘 임대 공간"이라며 "남원이 앞으로 호남과 영남권의 화장품산업 거점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전주시, 간부공무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5급 이상...부모·배우자 등 가족 포함

전주시가 시장·부시장 등 5급 이상 전체 간부 공무원과 그의 가족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한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백미영 전주시아파트특별조사단장은 전날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총 시정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발을 한 3곳과 개발이 예정된 5곳, 그 외 1곳 등 총 9곳의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53명과 도시개발사업 부서 전 공무원 및 관련된 12개 협의부서의 결재 라인 등 총 500여명의 공무원이다. 이는 전주시 전체 공무원 2200명의 22%에 해당된다. 전주시는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본인과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을 상대로 조사대상지 9곳의 투기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대상자는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이 공무원이면 강제적으로, 그의 가족이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투기 여부를 확인한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공무원의 가족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투기 여부를 확인할 대상지는 ▲만성지구, 효천지구, 예곡시터 등 최근 택지개발이 완료된 3곳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등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천마지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여의지구 등 7곳이다. 여기에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등 2곳을 추가해 총 9곳을 확인한다.

조사 범위는 주민열람공고일 5년 전부터 지구지정일(고시일)까지다. 개발 방식에 따라 조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범위를 5년보다 더 늘린다. 여의지구의 경우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일 5년 전부터 제한구역 해제일까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고창군과 상하농원이 봄을 맞아 가족단위 여행객이 머물며 체험할 수 있는 '꼬마농부 딸기스쿨 패키지'를 운영한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상하농원, '꼬마농부 딸기스쿨' 운영

내달 29일까지...딸기 수확 체험

고창군은 상하농원과 협력해 봄을 맞아 가족단위 여행객이 머물며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꼬마농부 딸기스쿨 패키지'를 다음달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꼬마 농부 딸기스쿨 패키지'는 지난해 고창군과 상하농원 협업체 산업관광육성 공모사업 '짓다·놀다·먹다·쉬다·6차 산업관광 프로젝트'로 선정돼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의 딸기농가에서 딸기 수확 체험을 진행하고 교육과 체험이 결합된 에듀테인먼트 요소를 겸비한 농가보급형 딸기 스마트팜(상하베리굿팜)에서 딸기교육, 모종심기 등 체험을 진행한다. 또 자연 속에서 만나는 품격 있는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파머스 빌리지 숙박과 스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구성됐다.

여기에 전북관광자유이용권인 고인돌박물관-고창읍성 전북투어패스 연계상품을 개발해 고창을 방문하시는 여행객에게 입장권을 제공하여 함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경직되었던 몸과 마음을 풀어 색다른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산·들·강·바다·갯벌 등 고창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활용해 고창만의 특화된 매력이 보장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과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소규모 맞춤형 농촌·힐링체험 등 코로나19로 바뀐 관광트렌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속도로 휴게소 로봇 서빙 받아볼까

도로공사 이서휴게소 시범운영
반찬 리필·빈그릇 수거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고속도로 휴게소 중 처음으로 이서(순천 방향)휴게소에 서빙 로봇(사진)을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 기조로 로봇에 대한 관심이 확산하고 긍정적 인식도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추진됐다. 휴게소 식당가에 도입하는 서빙 로봇은 정해진 경로를 순환하며 반찬 리필 및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빈 그릇 수거 서비스를 우선 시행한다.

또 로봇의 모니터를 이용해 안전띠 착용과 졸음운전 예방 등의 교통안전 캠페인 동영상도 주기적으로 노출해 교통안전 의식 제고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도로공사는 시범 운영 후 고객 반응과 추가 기능 요구사항 등을 수렴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북본부 관내 휴게소에도 순차적으로 도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주성 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최초로 서빙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고객에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과 미래기술에 선도적인 스마트한 '혁신 공기업'으로 국민들에게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